

KIA, '뒷돈 요구 파문' 장정석 단장 해임 조치

FA 협상 과정에서 금품 요구
"농담성 발언" 해명 문제 판단
구단 "그릇된 처신 용납 안돼"

KIA 타이거즈가 2023 시즌 개막을 코앞에 두고 단장 자리 공석이라는 대형약재와 마주했다.

KIA 구단은 29일 품위손상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장정석 단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임을 결의했다. 이로써 올 시즌 개막을 실무 최고 책임자인 단장이 공석인 채로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동원(현 LG 트윈스)은 최근 한국프로 야구선수협회(선수협)에 장정석 단장의 비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원 측은 자유계약선수(FA) 협상 과정에서 장 단장이 '뒷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말 트레이드를 통해 키움에서 KIA로 이적한 박동원은 시즌 종료 후 KIA와 다년 계약 협상을 했다. 당시 장 단장은 FA 자격을 취득하는 박동원에게 뒷돈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장 단장은 '농담성 발언'을 한 것으로 해명했지만, 박동원 측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녹취록을 선수협에 제출했다.

KIA 구단은 "즉시 사실관계를 파악에 나



장정석

그는 해임에 앞서 전날(28일) 구단측에 사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최근 불거진 장정석 단장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KIA 타이거즈 팬 분들은 물론, 프로야구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팬 여러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구단 임직원 및 선수단의 준비 교육에 더욱 힘쓰고,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선수 출신인 장정석 단장은 은퇴 후 현대 유니콘스 기록원, 히어로즈 매니저, 운영팀장 등을 거쳤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키움 히어로즈 감독으로 팀을 지휘했다. 이후 장 단장은 2021년 11월 KIA 단장직으로 선임됐다.

이번 장정석 단장의 뒷돈 요구 파문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야구계에 대해 우려스러운 시선을 피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야구규약에 위배되는 허위 금전

거래가 없었는지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타구단과 다른 선수, 또는 외국인 선수의 계약과정에서도 리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눈감아준 부분이 없었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프로야구 KBO리그는 개막을 앞두고 많은 약재에 휘말리고 있다. 한국 야구는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본선 1라운드 탈락의 수모를 당했다. 앞서 지난 23일엔 롯데 자이언츠에서 뛰던 투수 서준원이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리그에서 퇴출당해 야구 팬들에게 충격을 줬다. 여기에 프로야구 실무 최고 책임자의 뒷돈 요구 파문까지 벌어져 논란을 빚고 있다.

/조혜원 기자



창과 방패의 대결 29일(한국시간) 독일 쾰른에서 열린 쾰른의 라인에너르기 슈타디온에서 열린 독일과 벨기에의 친선경기에서 독일 골키퍼 마크 안드레 테어 슈테켈이 도미 루크비키오의 공격을 차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FC, 수원FC 상대로 '홈 2연승 정조준'

내달 1일 오후 4시 30분

역대전적 14승 4무 6패

프로축구 광주FC가 시즌 첫 홈 2연승을 정조준한다.

광주는 오는 4월 1일 오후 4시 30분 광주 축구전용구장에서 수원FC와 하나원큐 K리그1 2023 5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광주의 공격이 불을 뿜었다. 광주는 지난 라운드 인천UTD와의 홈경기에서 아사니의 헤트트릭과 이희균, 엄지성의 득점에 힘입어 5-0 대승을 기록, 막강한 화력으로 짜릿한 승리를 홈팬들에게 선사했다.

2연패를 끊고 대승으로 화려하게 비상한 광주다. A매치 휴식기를 통해 컨디션 관리와 체력까지 완벽하게 충전한 만큼 홈에서

역동적인 광주의 축구를 펼칠 때 동시에 2연승으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

이번 상대 수원FC는 신홍 강자로 불린다. 기존의 이승우, 박주호, 라스, 무리요 등 핵심 선수가 견재한 가운데 윤빛가람, 이광혁, 이용, 김선민 등 K리그에서 검증된 베테랑을 영입하며 더 탄탄한 스쿼드를 구축했다.

그러나 광주는 수원FC에 강했다. 역대 전적 14승 4무 6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 맞대결인 2021시즌에도 2승 1패로 앞서는 등 강한 면모를 보였다.

아울러 광주는 지난 인천전에서 20개의 슈팅(유효슈팅 13개)으로 맹공을 퍼부으며 화려한 공격을 자랑했다. 헤트트릭의 주인공 아사니와 팀의 에이스 엄지성 외에도

이희균이 득점은 물론, 날카로운 드리블과 키퍼스로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산드로와 토마스 브라질 듀오 또한 강력한 슈팅과 연계 플레이를 선보이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적극적인 압박으로 중원을 장악한 정호연 또한 최근 맹활약을 바탕으로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으며 안영규와 티모를 중심으로 구축된 센터백은 탄탄한 수비로 팀에 안정감을 불어넣었다. 여기에 PK선방과 함께 무실점을 이끈 김경민의 슈퍼세이브까지 더해지는 등 완벽한 경기력을 구현했다.

광주는 홈에서 이어지는 연전인 만큼 강한 압박으로 상대 중원과 공격진을 묶고, 빠른 역습과 적극적인 공격 축구를 살린다면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조혜원 기자

황선홍호, 도하컵 U-22 무실점 우승

UAE에 3-0 완승

2024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는 22세 이하(U-22) 남자 축구 대표팀이 카타르에서 열린 국제 친선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9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알두하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UAE)와의 2023 도하컵 U-22 친선대회 결승에서 후반 안재준(부천FC)의 선제 결

승 골과 홍시후(인천)의 멀티 골을 엮어 3-0으로 완승했다.

아시아 10개국 출전한 이번 친선대회는 모든 팀이 2경기씩 치른 후 경기 성적에 따라 순위 결정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기간을 활용해 올림픽 대표팀의 전력 강화 차원에서 이번 대회에 참가한 우리나라는 오만(3-0승), 이라크(1-0승)를 연파하고 UAE와 1-2위 결정전에 나섰다. 결국 UAE까지 돌려세워 3경기 7득점,

무실점으로 우승을 차지하고 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황선홍호는 전반을 득점 없이 마친 뒤 후반 13분에 가서야 결국 UAE 골문이 열렸다.

이태석(서울)이 오른쪽에서 올린 코너킥을 변준수(대전하나시티즌)가 골문 왼쪽에서 머리로 떨어뜨리자 안재준이 왼발로 슈팅했고, 공은 크로스바에 맞은 뒤 골라인 안쪽에 떨어졌다. 이후 후반 34분 역습 상황에서 고영준의 패스를 이어받은 홍시후가 상대 페널티지역 안 왼쪽에서 개인기로 수비수들을 따돌리고 오른쪽으로 마무리해 추가 득점을 뽑았다. 홍시후는 후반 41분 췌기골까지 터트렸다. /연합뉴스

광주시청 김태효 실업육상 남자 100m 우승

김국영 결승서 파울 실격

'한국간판 스피리터' 김국영(32)이 없는 100m 트랙의 주인공은 김태효(30)였다.

광주시청 김태효는 29일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3 Amazing 익산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남자 100m 결승에서 10초49로 1위를 차지했다. 김태효는 올 시즌 첫 대회 우승으로 광주시청 이적 신고식을 치렀다.

김태효는 10초54로 예선을 통과했고, 결승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2위는 10초58의 이규형(국군체육부대), 3위는 10초63의 비웨사다니엘가사마(안산시청)가 차지했다.

김국영은 예선을 10초39로 통과했으나 결승에서 파울로 실격됐다.

여자 100m에 나선 강다슬(31)은 12초31로 예선을 통과한 뒤 결승을 뛰지 않았



김태효

다. 1위는 11초95를 기록한 김다은(기평군청)이 차지했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김국영이 이런 파울을 잘 하지 않는데 지난해 전국체전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실격돼 격정이다. 대신 김태효가 1위를 하면서 광주시청 이적 신고식을 치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다슬은 지난해 다친 부위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다. 부상 예방 차원에서 결승은 나서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를 마무리한 광주시청 선수들은 오는 5월 5-9일 예선에서 열리는 제51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에 나설 예정이다. /최진희 기자

여자 소프트볼 아시아컵, 내달 2일 개막

인천 송도LNG스포츠타운

2023 여자 소프트볼 아시아컵이 4월 2일부터 8일까지 인천시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에서 열린다.

2023 여자 소프트볼 아시아컵은 아시아 소프트볼연맹(SA)이 주최하는 아시아 최고 권위의 소프트볼 국제대회로 4년 주기로 열린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해 8월, 여자 소프트볼 아시아컵 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대회에는 개최국 한국을 포함해 일본, 대만, 중국,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인

도, 홍콩 등 9개국 15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예선은 9개 팀 풀리그로 진행된다. 예선 5-9위는 순위 결정전으로 내려가고, 1-4위는 토너먼트로 최종 순위를 가린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이번 대회는 9월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전초전"이라며 "아시안게임 주요 참가국이 모두 출전하는 만큼 사전에 전력을 확인하고 우리 한국대표팀 경기력을 미리 점검할 기회"라고 설명했다.

2023 아시아컵 한국 대표팀의 목표는 3위다. /연합뉴스

클린스만표 공격 축구, 이강인·오현규 존재감

A매치 2연전 일정 마무리

벤투호의 '빌드업 축구'에서 황인범(울림피아코스)이 '황태자'로 자리매김했다면 베일을 벗은 클린스만호에는 일단 '2001년생 듀오' 이강인(마요르카), 오현규(셀틱)의 존재감이 두드러진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8일 우루과이전을 끝으로 3월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2연전 일정을 마무리했다.

콜롬비아(2-2 무), 우루과이(1-2 패)를 차례로 상대하면서 새 사령탑이 입히고자 하는 색깔도 일부 드러났다.

콜롬비아전(9-8), 우루과이전(10-8) 모두 상대보다 많은 슈팅을 기록했고 점유율도 54%-46%, 68%-32%로 우위였다.

양 측면에서는 과감한 크로스가 잦아졌고, 공격수가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진이 황급히 뒷걸음치게 만드는 장면이 자주 나왔다. 미드필더도 상대 페널티박스까지 깊숙이 들어가 골문을 위협하는 등 선수단 전반에

'공격성'이 커진 듯한 모습이 엿보였다.

클린스만 감독은 콜롬비아전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이) 골대가 어딘지 확인하고 득점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프리킥을 줄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우루과이전에서 이 역할을 수행한 건 '차세대 에이스' 이강인(마요르카)이었다.

클린스만 체제 두 경기만에 선발로 나선 이강인은 평소 위치인 왼쪽이 아닌 오른쪽 2선 공격수로 출전했다.

공이 발에 붙어 있는 것 같이 안정적이면서 창의적 드리블로 수비진에 균열을 내는 등 끊임없이 상대 진영으로 전진하며 공격의 활력소 역할을 했다.

최전방에서는 누가 세계적 공격수 출신인 클린스만 감독의 선택을 받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주전 경쟁 중인 세 스트라이커 중 당장 골망을 흔들어 본 건 '신예' 오현규(셀틱)다. 두 경기 모두 교체 투입된 오현규는 우루과이전 후반 39분 이강인의 크로스를 오른발 터닝 슈트로 연결해 홈팬들을 열광케 했다. /연합뉴스